

시간의 선분(線分) 위에서

최태만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교수)

선분·숫자

26,776일, 41.5km, 195km, 2000년, 1394년, 1945년, 1950년, 1988년, 9,895,217명, 605km²....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26,776은 1945년 8월 15일 남북이 분단된 날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날수이며, 195는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이다. 서울에서 임진각까지의 거리는 불과 41.5km이다. 2000년은 서울시가 홈페이지에서 밝힌 서울의 역사이다. 이는 백제가 위례성을 수도로 한 기원전 18년을 기준으로 한 햇수이며, 조선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것은 1394년이였다. 통계청이 2000년을 기준으로 발표한 서울의 인구는 9,895,217명이며, 면적은 605km²이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서울은 넓고 인구는 많으며 군사분계선이나 평양까지는 가깝다. 1988년은 경희궁 터의 옛 서울고 본관 건물에 서울시립미술관이 개관한 해이다. 해방 후로부터 계산하면 서울시는 43년 만에 시립미술관을 개관한 셈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개관 이전인 1985년부터 《서울미술대전》을 통해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ⁱ 2020년 7월 말 서울시립미술관은 “그동안 미술계 공론의 장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장품 ‘수집’을 둘러싼 ‘저자들’을 부활시키고 미술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고자”ⁱⁱ SeMA Agenda 2020 ‘수집’을 주제로 이틀간 《모두의 소장품: 소유에서 공유로》, 《미래의 소장품: 유물에서 비트로》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20년 12월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은 5,219점이며, 미술관이 ‘사회적 미술’로 분류한 작품 중에는 2001년 가나아트 이호재 대표가 기증한 200점도 포함돼 있다. 1980년대 민중미술의 이해와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에는 분명하지만 2018년 서울시립미술관이 『SeMA 소장품 가나아트 컬렉션』을 출간한 바 있으므로 제외하고 내가 조사한 작품은 모두 16점이었다.

나의 관심은 소장품을 통해 ‘서울 읽기’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청계천 복원 직전의 청계천의 일상을 기록한 안세권의 <청계 Scape I>(2003)(도1), 사지가 멀쩡한 작가 본인이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종로, 명동, 이태원, 미아리, 압구정 거리를 마치 장애인처럼

바닥을 기어가며 도시의 풍경과 사람들을 '읽는' 윤진미의 <As It Is Becoming(Seoul, Korea): Teum/Passages>(2008)(도2), 한강 유람선과 둔치를 사이에 두고 촬영한 임민욱의 <S.O.S. -채택된 불일치>(2009)(도3),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 재난에 노출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설치인 리슨투더시티의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2018)(도4) 등을 주목했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거의 재건되다시피 한 서울은 급속한 현대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했다. 청계천 복개가 주변의 불량환경을 덮은 것이었다면 복원사업은 비록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도시재개발의 연장이었다. 서울은 재개발에 의한 도시경관의 변화 뒤에 가려진 난개발을 비롯하여 자연재해는 물론 와우아파트, 성수대교, 삼풍아파트 붕괴 등과 같은 재난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도시이다. 그런 점에서 성장 못지않게 그 뒤에 가려진 '불편한 현실' 또한 주목해 마땅하지만 앞의 작품은 대체로 최근 미술관 전시를 통해 공개되었거나 『SeMA Collection 200』에서 정리된 바 있으므로 이 또한 제외했다. 결국 미술관 소장품을 통한 '서울 읽기'를 수행하면서 나는 서울을 시간의 선분에 놓고 상상하기로 했다. 사실 선분은 시작과 끝이 명확한 직선이고 통계는 사태를 파악하는 최소한의 자료이지만 성장과 발전의 수치로부터 배제된 또 다른 숫자를 떠올려보았다. 그래서 떠올린 또 하나의 숫자가 1978-1993-2002이다.

1978-1993-2002: 난지도로부터

서울시 마포구 한강 하류에 발달한 범람원인 난지도는 맑고 깨끗한 수질 덕분에 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생 동식물이 풍부해 겨울이면 철새들이 날아드는 자연의 보고였다. 난초와 지초가 만발해 꽃섬으로 불렸던 아름다운 모래섬 난지도는 어느 순간 도시의 폐기물을 쌓는 땅으로 바뀌었다.ⁱⁱⁱ 1977년 1월 7일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난지도와 육지 사이에 흐르는 샛강을 매립하는 제방축조공사를 착공했는데 팽창하는 서울이 버린 쓰레기를 묻을 땅이 부족하자 1978년 3월 난지도를 쓰레기 하치장으로 지정했다. 그로부터 난지도는 먼지와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가 들끓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 난지도에서 땅콩과 귀리를 재배하던 사람들은 터전을 잃고 떠나거나 썩은 쓰레기로부터 흘러나온 침출수와 악취, 먼지, 화재로 발생한 유해가스 속에서 매일 트럭이 실어와 부어놓은 연탄재, 오물과 같은 생활쓰레기, 가전제품, 건설폐자재, 산업폐기물 등을 뒤적여 돈이 될만한 물건을 찾아 생

계를 유지하는 낭마주이가 되었다. 한때 4천여 명의 주민이 쓰레기 더미 위에 비닐 천막으로 영성하게 만든 움막에서 생활하며 고물을 모았으나 빈번한 화재는 그들의 고단한 삶을 더욱 비참한 지경으로 내몰기도 했다. 소설가 정연희가 1985년에 발표한 『난지도』에서 “난지도 쓰레기 산 위로 쏟아져 내리는 불별은 저주였다. 그것은 앙심이 되었다. 쓰레기 더미는 죽음의 산이다. 인간의 삶에서 부스러기가 되어 나온 주검의 산이다. 그 산에는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맹렬하게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썩어가는 일과 썩어가는 냄새뿐이다. 그것만이 죽음도 정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난지도는 개발의 부산물인 오물로 퇴적된 유형지나 다름없었다. 불과 15년 만에 높이 100m, 둘레 2km의 거대한 두 개의 쓰레기 언덕이 지형을 바꿔놓았다. 1992년 11월 26일 서울, 인천, 경기지역 쓰레기를 공동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건설됨에 따라 1993년 3월 31일 총 9,200만톤에 이르는 쓰레기 매립을 끝으로 도시로부터 버림받은 땅의 시간도 끝났다.

거대한 두 개의 쓰레기 언덕을 흙으로 덮었으나 퇴적된 쓰레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침출수와 악취, 유해가스 때문에 난지도가 생물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거듭날지는 숙제였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이 인공적인 폐허 위에 버섯이 자라고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난지도가 있는 상암동 일대가 2002 월드컵 경기장 부지로 선정되면서 난지도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2002년 5월 마침내 난지천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 난지한강공원으로 개원하기에 이르렀다.^{iv}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1978년으로부터 1993년까지 15년 동안 미술계는 난지도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1985년 2월, 김홍년, 박방영, 신영성, 윤명재, 이상석이 “우리는 과거, 미래보다 오늘의 현실을 탐구한다.”는 기치 아래 ‘세계성 획득’과 ‘입체성 확보’를 내세우며 난지도를 창립했다.^v 그러나 단체 이름을 난지도로 했지만 이들의 작업은 난지도의 현실과 상관없었다. 미술가들에게 난지도는 여전히 도시의 문명으로부터 버려진 땅이자 미술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는 ‘다른 장소’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 작가가 매일 난지도 옆에 건설 중이던 월드컵 경기장의 건설과정을 촬영하고 있었다. 미디어 아티스트 양만기는 1998년부터 1년 8개월 동안 16mm 영화카메라로 매일 시간대를 달리하며 월드컵 경기장의 건설과정을 촬영한 영상 다큐멘터리를 제작, 편집해 영국 BBC방송에 6,400만 원에 팔았다. 미술이 난지도를 애써 외면하고 있을 때 난지도의 어두운 시간을 지워버리며 또 하나의 성장의 상징으로 부상한 월드컵 경기장은 이렇게 기록되고 상품이 되어 팔려나갔다. 이 영상은 BBC가 아니라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장해야 했다. 난지도의 시간은 나

현의 <난지도> 연작을 통해 소환된다.

선무와 김복주

난지도가 개발의 시간에 난 틈이라고 한다면 선무(1972-)와 김복주는 분단의 시간이 만든 틈 사이로 탈주한 인물이다. 이들은 26,776이란 숫자 속에서 살아가는 한 점이거나 어느 날 그 숫자 위로 등장한 사람이다. 이 숫자의 출발점에 1945가 있다. 1945년은 38도선이 그어진 분단의 시점을 의미한다. 남북분단의 시간은 1945-1948-1950-1953-1972-1985-2000-2007-2018과 연결된다. 분단과 함께 월남, 월북, 이산이 한반도의 현실이 되었다. 미술이라고 이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해방 직후 일자리를 찾아 남한 작가들이 북으로 올라가고 공산주의 체제를 거부한 북한 작가들은 남으로 왔다. 1948년 남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면서 남한에서는 좌익이 소탕되거나 지하로 잠복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고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된 3개월 동안 서울에 남은 작가들이 불려나가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를 그려야 했다. 국군과 연합군이 서울을 수복하자 많은 작가들이 북으로 갔다. 그중에는 납북자도 있었다. 다시 1.4후퇴와 함께 이번에는 이중섭, 이승택 등의 북한 출신의 많은 작가들이 남으로 내려왔다. 휴전회담과 함께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이쾌대는 북을 선택했다. 월북작가들은 1988년 해금이 될 때까지 남한에서는 금기였다.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원칙을 확인했으나 남북의 대립과 갈등은 지속되었다. 그러다 1985년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제5공화국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으로 남한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88서울올림픽도 작용했다. 1998년에는 금강산 관광도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가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인 '노란 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갔다. 그리고 2018년 4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구역의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 달 뒤 공동경비구역 북측 구역의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으나 2019년 하노이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다시 교착국면이다. 짧은 글에 주로 남북정상회담을 다루었으나 이 시간의 선분 위에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중첩돼 있다. 분단에 의한 이산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으로 간 사람들(그 속에는 조양규도 있다.)과 세계 곳곳에 흩어진 '디아

스포라'는 대부분 분단의 유산이기도 하다.

1987년 2월 김만철 가족 10명이 작은 배를 타고 청진항을 출발해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온 이후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며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9년 잠정적으로 33,71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02년 이후부터 여성의 비율이 급속하게 늘어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해방으로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만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 귀국한 사람을 비롯하여 월남인을 전재민(戰災民)이라 불렀다면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온 사람을 1990년대 이전에는 귀순 북한 동포라 불렀으나 이제는 새터민 또는 탈북민으로 부른다. 이들은 국정원 조사와 하나원에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은 후 정착금을 받아 전국으로 흩어진다. 그들 중에는 선무와 김복주가 있다. 1972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선무와 평양에서 태어난 김복주는 다 같이 북한에서 성장했고,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생활하다 남한으로 왔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걱정해야 하는 그들에게 195km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지만 누구 못지않게 이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복주는 현재 안산에서 거주하며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선무는 9,895,217명 중의 한 명이다. 그 밖에도 무수하게 많은 선무와 김복주가 있다.

이상이 시간의 선분에 난 틈 위의 장소와 사람을 통해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을 읽고자 한 나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난지도와 선무, 그리고 김복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임흥순의 <북한산>으로 집중된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사회적 미술'에서 보고자 한 '틈'은 거대도시 서울의 발전 뒤에 감춰진 도시의 틈이기도 하다. 큐레이터를 프랑스에서는 '콩세르바퇴르(Conservateur)'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비축(Thésaurisation)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지만, 미술관에서는 소장품 관리를 책임지는 전문가를 지칭한다. 국가유물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콩세르바퇴르 파트리모안(Conservateur Patrimoine)'이라고 부르니 사회적 존경과 함께 그만큼 전문성과 책임성도 요구되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공간이 귀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자물쇠로 채워두기만 하면 아무 쓸모 없는 창고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 이 물건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문제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천경자 컬렉션, 가나아트 컬렉션처럼 특화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곧 개관할 평창동의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2021.12. 개관예정)는 도서관, 아카이브, 미술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담당할 라키비움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여기에는 5만여점에 이르는 예술인 아카이브 컬렉션이 분류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거친 후 공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작업은 아키비스트의 몫이다. 그러나 이 방대한 소장자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야기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콩세르바퇴르'이기도 한 큐레이터에게 남겨진 몫이다. 돋보기로 보는 것 못지않게 소장품과 자료들을 계통적, 계열적으로 분류하여 동시대 미술의 계보학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거듭 읽기와 고쳐 읽기의 과정을 반복하며 소장품이 지닌 서사의 두께를 쌓고 넓히는 작업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품과 자료를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토대이다. 시간의 선분은 소장품이 살아갈 미래의 시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본 원고는 《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021.01.26 ~ 2021.04.11.)의 도록 『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2021)에 수록되었습니다.

© 작가, 저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모두의 연구실 '코랄'에 수록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작가, 저자,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에 있으며, 저작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의 역사는 김아영, 「복합적 동시대성을 구현하는 미술관과 소장품」, 『SeMA Agenda 2020 '수집' <소유에서 공유로, 유물에서 비트로>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시립미술관(서울시립 미술관, 2020), 12-21.

ii 백지숙, 「여는 말」, 같은 책, 8.

iii 난지도의 어제로부터 안정화작업, 환경생태 공원으로의 재생에 대해서는 『환경생태 공원으로 다시 태어난 월드컵공원, 난지도 그 향기를』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2006). 참고.

iv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공사의 성과에 대해서는 유가영 외,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난지도 생태공원복원』 (서울연구원·서울특별시, 2014). 참고.

v 김찬동·김용익·문범·서성록·윤영석·하용석이 참가한 좌담, 「모더니즘 미술의 심화와 극복은 어떻게 이뤄져 왔는가」, 『계간미술』(1988년 여름호), 46-61. 참고.